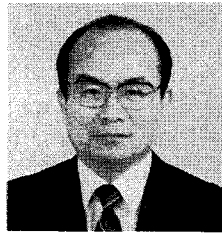


#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 영 진

경상남도 축산 과장

임신년 새해에는 축산인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에도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압력과 U·R 협상 등으로 1차 산업인 농업 분야는 많은 시련이 닥쳐 오리라 생각됩니다. 축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며,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모두의 슬기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도의 '92년도 축산시책기본방침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가격안정, 우유수급안정 및 낙농발전 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예방 철저와 축산물위생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영세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방류로 인한 환경 및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영세한 양축 농가에 축산폐수 방지 시설비를 지원하여 양축의욕을 고취하며,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유지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간이처리시설 966개소와 톱발생산기 5대로서 총사업비는 기금보조, 도비, 시군비, 자담을 포함하여 3,751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둘째,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축사시설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을 대처하며,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므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소 50두 이하, 돼지 3천두 이하, 닭 3만수 이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급수, 급이시설, 환기시설, 분뇨처리시설등 시설개선

“

'92년도에는 산유량 6,000kg 이상인  
 우수 젖소 5,000두를 선발해서 마리당 도비 3만원과  
 자담 2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 하며, 그외 축산단지조성 2개소,  
 축산물공판장 설치, 톱밥 발효 축사용 톱밥공장 설치,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축산폐수처리 시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 또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가족단위 전업농가 육성및 가족개량 사업 추진과 축산물 유통개선, 가족  
 계열화 사업의 확대 및 U·R대비를 위한 학계, 축협, 양축가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고, 양축농가의 축산 경영 개선 방안으로  
 축산경영 진단사업등을 추진할 계획

”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량은 250여 개소로 개소당 35백만원이 융자될 것입니다.

셋째, 가족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족의 중요 전염병 예방 조치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와 방역 소홀이 우려되는 영세양축농가에 대한 가족방역지원 사업으로 총 1,014천두를 대상으로 예방주사, 병원검진, 기생충 구제등을 실시합니다.

넷째, 조사료 증산사업입니다.

부존사료 자원인 양질의 풀 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농후사료 절감으로 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초지조성, 답리작 재배, 청예사료 재배 및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조사료 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은 '91년도에 1개소를 조성하였고, '92년도에는 4개 단지에 단지당 트랙터외 14종의 기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지조성 대상 지역은 소사육 및 조사료 생산 기반이 좋은 지역과 기종 관리 이용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며, 사업비는 개소당 70백만원을 투자,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단지의 시범운영으로 파급 효과를 거양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젖소의 산유능력을 낙농 선진국으로 조기 개량하

여 안정된 낙농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수입 개방화에 따른 대외 경쟁력을 강화코자 현재 우리 나라 젖소 마리당 연간 5,360kg이 생산되는 산유능력을 7,000kg 이상까지 생산되도록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개량 목표는 3년간 4만두를 년차적으로 개량하며, 이를 위하여 낙농 선진국의 고능력 젖소 정액을 도입하여 수정 개량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는 산유량 6,000kg 이상인 우수 젖소 5,000두를 선발해서 마리당 도비 3만원과 자담 2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며, 그외 축산단지조성 2개소, 축산물공판장 설치, 톱밥 발효 축사용 톱밥공장 설치,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축산폐수처리 시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가족단위 전업농가 육성및 가족개량사업 추진과 축산물 유통개선, 가족 계열화 사업의 확대 및 U·R대비를 위한 학계, 축협, 양축가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고, 양축농가의 축산 경영 개선 방안으로 축산경영 진단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2년 한 해가 우리 축산인 모두에게 복되고 뜻깊은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월간 낙농육우”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